이탈리아, 소비자신뢰지수 하락

이혜은 연구원

■ 12월 23일 이탈리아 통계청(ISTAT)은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1.6을 기록해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 내각 출범 효과로 상승했던 지난달(96.1)보다 4.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함.

- 이는 내년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블룸버그가 집계한 경제전문가 예상치(95.3)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.
- 소비자신뢰지수는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이 기준임.
  - 소비자신뢰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소비자가 나쁘게 보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로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줌.
  - 반대로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위축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, 가계수요가 줄면 경기침체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덫에 갇히게 됨.

■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가 16년래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그만큼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졌다는 증거임.

- 내년 상반기 대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30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에 나설 계획임.
- 소비자들은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이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이미 이탈리아 경제는 10년래 5번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.

■ 앞서 이탈리아 통계청은 12월 21일 3/4분기 국내총생산(GDP)이 전분기 대비 0.2% 감소하고 가계 지출도 0.2% 줄어든 반면 10월 실업률은 17개월래 최고치인 8.5%로 상승했다고 발표함.

-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의 경제 모멘텀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이날 영국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.7% 줄어 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함.
  - 영국은 서비스산업이 GDP의 75%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.

(연합뉴스 등, 12/23)